

우리 나라 철학사에서 사람에 대한 견해의 역사적변천(1)

로 학 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문제는 오래전부터 철학의 연구대상으로서 수많은 론의되여왔으나 완성된 철학적해명이 주어지지 못하고있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6권 139페이지)

우리 나라 철학에서 사람에 대한 견해는 비록 미숙하고 비과학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고대시기부터 제기되여왔다.

우리 나라 고대철학에서 사람에 대한 견해는 세계에 대한 견해와 떼어 수 없이 련결되어있다.

우리 나라 고대철학에서 사람에 대한 견해는 우선 유기론철학에서 제기되였다.

유기론철학은 세계의 다양한 천지만물을 물질적인 기로 설명하면서 사람도 기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삼국유사》에는 《옛날 녕품리왕의 몸중에 태기가 있어 점쟁이가 점을 쳐 말하기를 <아이를 낳으면 귀히 되여 반드시 왕이 되리라.>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 자식이 아니니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가 아들을 낳게 되니...필경 부여왕이 되였다.》(《삼국유사》권1 기이2 고구려)라고 써여있다. 그리고 《론형》과 《삼국지》에는 《고리국왕의 몸종이 임신하여 왕이 죽이고자 한 즉 몸종이 대답하기를 닭알과 같은 모양의 기가 있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가 임신하였다.》(《론형》 권2 길협편)라고 써여있다.

이러한 자료들의 내용을 함축해보면 하늘에 기가 있는데 그것이 땅으로 내려와 태기가 생기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기로부터 생겨났다고 보는 견해로서 유치하고 비과학적인 예측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사람과 그의 발생을 물질적요인에 의하여 설명하려는 소박한 유물론적견해가 내포되어있다.

고대시기 사람에 대한 유물론적견해는 세계에 대한 직관적인 견해에 기초하여 사람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보고 이렇게나저렇게나 물질세계발전의 합법칙성의 견지에서 해석하려는 견해였다.

우리 나라 고대철학에서 사람에 대한 견해는 또한 선인사상에서 제기되였다.

선인사상은 사람의 행복한 생활이 래세가 아니라 현세에서 실현될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선인사상에서는 사람의 운명이 육체적인 건강과 섭생에 달려있는것만큼 불로초나 선약(혹은 선단, 명약, 신약)과 같은 약을 먹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인격적수양을 하게 되면 늙거나 죽지 않고 오래 살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선인사상은 장생불사와 육체적단련, 도덕적완성을 인간의 삶의 목적과 가치로 보며 누구나 완성된 인간, 이상적인 인간의 경지 즉 선인의 경지에 도달할것을 주장하였다. 죽지 않고 오래 살것을 바라는 당시 사람들의 념원과 행복한 삶에 대한 지향이 반영되어있는 선인사상은 사실 고대사람들의 인체와 질병, 치료방법과 제약기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여 발생하였다.

우리 나라 고대철학에서 사람에 대한 견해는 또한 《홍익인간》, 《제세리화》사상에서 제기되였다. 이러한 사상은 주로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서 제기되였다.

사람에게 크나큰 리익을 줄것을 내용으로 한 《홍익인간》사상은 정치의 목적, 리상이 사람의 리익, 요구를 실현하는데 있다는 사상이며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요구실현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리고 《제세리화》사상은 바람, 비, 구름과 같은 자연현상이나 농사,

인간의 생명을 다스릴데 대한 사상이다.

《홍익인간》, 《제세리화》사상은 신흥노예주제급의 립장이 반영된 사상으로 노예들이 사람취급을 받지 못하고있던 노예사회의 조건에서는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한갓 리념에 불과하였지만 여기에는 자연을 지배하려는 사상과 함께 사람을 위한 정치리상이 구현되어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세계를 지배하려는 사람의 요구를 자연의 구체적인 사물현상과 결부시켜보는 단편적이며 소박하고 미숙한것이였다.

그러나 《홍익인간》, 《제세리화》사상에서는 정치가 사람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종하여야 한다는 사상과 자연을 지배하고 개조하는 사람의 요구와 능력을 긍정하는 사상이 담겨져있다.

우리 나라 고대철학에서는 사람에 대한 진보적인 견해와 함께 환상적인 견해도 제기되였다.

우리 나라 고대철학에서 사람에 대한 환상적인 견해는 《단군신화》와 《해모수신화》, 고대조선국가들의 건국신화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신화와 전설에는 그 시기 사람들의 요구와 념원, 생활이 담겨져있다. 고대사람들은 자기의 요구와 념원에 맞게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냈으며 신을 다 사람모양으로 만들어놓았다.

고조선의 《단군신화》에 의하면 환웅과 그의 아버지 환인은 하늘에서 살고있는 신이다. 환인은 아들 환웅이 지상에 내려가 인간세상을 다스려볼 뜻을 가졌다는것을 알게 되자 그에게 천부인 3개를 주어 인간세상에 내려보낸다. 그리하여 3 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마루의 신단수아래에 내려온 환웅은 같이 내려온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바람, 비, 구름과 농사, 생명, 선악을 말아보게 하는 한편 그자신이 인간생활의 360여가지 일을 주관하면서 세상을 다스렸다. 이 과정에 환웅에게서 아들이 생겼는데 그가 바로 고조선의 첫 임금인 단군이라는것이다.

부여의 《해모수신화》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있다. 이것은 물론 왕권신수설에 기초하여 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노예소유자적통치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람의 모습과 능력, 지위에 대한 고대사람들의 표상이 환상적인 형태로 제기되어있다.

고대사람들은 의식성이 낮은데로부터 사람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신비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그것을 객관적사물에 부여하였을뿐아니라 하늘신을 비롯한 인격적인 자연신에 의하여 현실적인 사람이 지배된다고 인정하였다.

고대시기 사람에 대한 견해가 이러한 형태로 제기된것은 당시 사람들의 철학적사유가 발전하지 못하고 자연에 대한 지배와 개조능력이 미약하였던 사정과 관련되어있었다.

사람에 대한 견해는 우리 나라 중세철학에서 끊임없이 상승적으로 발전하였다.

세나라시기에 제기된 사람에 대한 견해의 특징은 고대시기의 인간에 대한 견해에서 신비적인 외피를 벗겨버리고 현실적인 인간을 중시하고 하늘과 동격에 놓은것이다.

사람을 하늘과 동격에 놓는 견해는 전쟁승리의 요인을 분석하는데서 나타났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위로 천도를 알고 아래로 지리를 알며 가운데로는 인심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다.(《삼국사기》권43 렬전 제3)

세나라시기에는 사람을 하늘이나 땅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견해도 제기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연기후조건이나 지리적조건이 사람을 단합시키는것만 못하다고 하였으며 사람의 화복도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삼국사기》권22 고구려본기 제12)

이러한 견해는 사람에 대한 표상을 신비적인 외피를 씌워서 제기한 고대의 견해에 비하여 진보적인 것이었다.

우리 나라 철학에서 사람에 대한 견해는 10-15세기에 더욱 발전하였다.

10-15세기에는 세나라시기의 사람의 견해를 계승하면서 사람을 가장 신령스럽고 귀중하다고 보는 견해와 그 근거를 밝힌 견해가 확립되었다.

12세기 후반기-13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리규보는 사람이 하늘, 땅과 같이 원기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그것은 리규보가 《원기가 처음 갈라져 위로 하늘이 되고 아래로 땅이 되며 그 가운데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세 뛰어난 존재이고 세 뛰어난 존재는 하나이다.》(《동국리상국집》 후집 권11 문조물)라고 한데서 표현되었다.

이것은 세나라시기에 천, 지, 인을 전쟁승리의 요인으로 보는 견해와 같은 사상으로 세계의 모든것을 주재한다고 하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신비화하던 하늘과 사람을 동격에 놓은 사상이다.

이 시기에는 세나라시기의 견해를 계승하면서도 사람을 천지만물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신령스럽고 귀중한 존재로 보는 견해가 지배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정도전, 권근, 김시습에게서 제기되었다.

정도전은 《그(기) 바르고 통한것을 타고난것은 사람이 되고 그 기울어지고 막힌것을 타고난것은 만물이 되는데 사람과 만물이 귀하고 천한것도 여기에서 갈라진다.》(《삼봉집》 권9 불씨잡변 불씨륜회지변)라고 하였다. 권근은 《원래 리가 있는 다음에 기가 있고 기도 양기의 가볍고 맑은것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음기의 무겁고 흐린 기는 아래로 내려와 땅이 된다. 이리하여 네 계절이 오고가며 만물이 발생하는데 사람은 그가운데서 천지의 리와 천지의 기를 온전하게 얻음으로써 만물보다 귀하며 천지와 더불어 삼재이다.》(우와 같은 책 10권 심기리편주 리유심기)라고 하면서 《5행의 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5상(인, 의, 례, 지, 신)의 성으로 된다.》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선행시기의 사상가들과 같이 사람을 천지와 함께 뛰어난 존재로 보면서도 천지만물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우수한 존재로 보려는 요소가 내포되어있으며 사람이 우수한 존재로 되는것은 5상을 타고난것과 관련된다는 견해가 반영되어있다.

김시습도 《사람은 뛰어나고 신령스러운것》(《매월당집》 권2 잡저 천형), 《사람은 만물의 가장 신령스러운것》(우와 같은 책 복기)이라고 하였다.

10-15세기의 사람에 대한 견해는 이전시기 사람이 만물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신령스러운 존재라는것을 명백히 해명하지 못한 견해에 비하여 전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철학자들은 사람을 사회적존재로가 아니라 자연적존재로 보았다.

우리 나라 철학에서는 16세기부터 사람에 대한 문제가 독자적인 문제의 하나로 설정되고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시기 사람에 대한 견해에서 논의의 중심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문제였다.

10-15세기에 인간이 천지만물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신령스러운 존재라는것이 확증된 조건에서 16세기부터는 인간의 본성문제가 논의되었다. 물론 이전시기에도 사람의 본성문제가 이러저러하게 논의되었으나 15세기까지는 이것이 독자적인 문제로 되지 못하였다.

16세기에는 사람의 본성에 대한 견해가 량충론으로 제기되었다.

사람에 대한 량충론적견해는 사람의 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보는 견해이다.

본연지성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며 보편적인 성질이고 선천적으로 타고난것으로서 순 선한것인데 그것은 인, 의, 례, 지를 말하며 기질지성은 매개 사람들의 기질에 따르는 성질이고 사람마다 각이할뿐아니라 선악이 다 있는것으로서 희, 노, 애, 구, 애, 오, 욕을 의미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량충론적견해의 대표자는 김린후와 리황이었다.

17-18세기 인간에 대한 견해는 인물성동이론으로 제기되었다. 인물성동이론은 사람과 천지만물의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진행된 논쟁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견해 즉 인물성구동론과 인물성상이론이 대두하였다.

인물성구동론은 사람과 만물의 본성이 다 같다는 견해이다. 그에 의하면 사람이나 동물은 다같이 리로부터 발생하고 리를 타고났기때문에 다같이 5상을 가지고있다는것이다. 인물성구동론의 대표자는 리간과 현상벽이었다.

인물성상이론은 사람과 만물의 본성이 서로 다르다는 견해이다. 그에 의하면 사람과 만물이 다같이 리를 타고나지만 리는 기를 통하여 발현되기때문에 우수한 기로 이루어진 사람은 5상을 가지지만 동물은 5상을 가지지 못하며 따라서 사람과 동물은 본성이 다르다는것이다. 인물성상이론의 대표자는 한원진과 윤봉구이다.

물론 인물성동이론은 성리학적관념론내에서의 논쟁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본성을 세계관적높이에서 논의한것으로서 사람에 대한 견해를 보다 발전시킨것이라고 볼수 있다.

사람에 대한 견해는 실학사상가들에 의하여 더욱 발전하였다.

실학사상가들에게서 제기된 사람에 대한 견해는 사람의 본성을 료리도덕적인것으로 보는 견해와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인식론적측면에서 찾는 견해이다.

사람의 본성을 료리도덕적인것으로 보는 견해는 정약용에게서 제기되었다. 그는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것은 《재》를 타고난것이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재》는 《권능》인데 권은 자주이고 능은 자력이다. 자주는 도덕적행위를 스스로 선택할수 있는 권리, 자유이고 자력은 도덕적행위를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으로 하여 사람은 동물과 구별된다는것이다. 그는 사람의 선이나 악, 선악, 본연과 기질을 타고난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만을 타고나며 따라서 사람의 본성에 대한 성선설과 성악설, 성선악설, 본연지성, 기질지성설을 다 반대한다고 하였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인식론적측면에서 보려는 견해는 리수광, 리익, 정약용에게서 제기되었다.

리수광은 사람과 동물은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서는 공통적이지만 말을 하고 지적능력을 가지며 무엇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는데서는 동물과 구별된다고 하였다.

리익은 사람이 동물과 달리 고급한 인식능력을 가지고있는데 고급한 인식능력이란 추상적사유능력 즉 개념, 판단, 추리와 같은 능력과 간접적인 반영능력이라고 보았다.

정약용은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것은 료리도덕적본성을 타고나는것과 함께 기술지식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 중세시기에 제기된 사람에 대한 견해의 특징은 사람을 만물가운데서 가장 귀중하고 신령스러운 존재로 보면서 하늘과 동격에 있는 존재로, 가장 우수한 기로 이루어지고 료리도덕을 본성으로 하고있는 자연적인 존재, 선천적인 존재로 본것이다.